순례자 급감에 관광산업 '초토화'

印 비하르주, 코로나19에 경제 타격 커져

박영빈 객원기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외 불교 성지순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3월 12일 인도의 '다운 투 어스'는 코로나19 여파로 불교 성지 밀집지역인 비하르주의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인도의 비하르주는 부처님의 성도성지인 부다가야를 비롯해 영축산과 나란다대학 유적 등의 불교유적이 산재하고 있다. 비하르주 관광부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비하르를 방문한 약 3500만 명 중 100만 명이 외국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한국, 중국 등 불교국가들을 중심으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비하르에 방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성지순례에 악영향이 미치면서, 비하르주의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주 3월 11일, 미얀마 양곤을 출발하여 가야를 거쳐 델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단 한 사람의 승객도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야공항은 성도성지 부다가야에서 5㎞가량 떨어져 있어 성지순례의 관문으로 손꼽히는 공항이다.

딜립 쿠마르 가야공항 이사는 "양곤에서 가야로 향하는 비행기에는 단지 13명의 승무원만이 탑승했다. 반면 델리에서 양곤을 향하는 비행기엔 120명의 승객이 탑승했으나, 아무도 가야에서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쿠마르 이사는 "일 평균 400여 명의 외국인이 가야공항에 내렸으나,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평균 50여 명 남짓의 승객만이 이동한다"고 전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
불교국가 중심으로 성지순례
코로나19로 입국 관광객 줄어
승객 없는 비행기 운행 잦아



부처님의 성도성지 부다가야에 세워진 마하보디 사원과 보리수.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비하르주 불교성지순례 투어를 운영하는 현지의 한 여행사는 "불교순례를 예약한 모든 순례그룹들이 예약을 취소했다. 여행사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고 전했다. 여행사 측은 "최근 인도 전역에서 발생한 시민권 수정법 항의 시위가 부다가야에서도 발생해 성지순례자가 감소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급감했다. 관광산업이 초토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부다가야에 상주하는 한 일본인 승려는 "봄과 여름이 본래 순례 비수기이긴 하나, 이렇게까지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껏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현재 부다가야의 모든 법회와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상주하던 외국인 스님들 가운데에서 자국으로 돌아간 스님들도 많다"고 현지 상황을 설명했다.

비하르주는 보건국은 "지난 1월 15일 이후로 주정부 주관의 코로나19 검역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비하르주에는 보건 헬프라인 전화를 24시간 대응체계로 돌렸으며, 부다가야 인근 파트나시에 4개의 대학병원과 2개의 민간병원이 코로나19 격리병원으로 지정됐다.

보건국은 "현재 관광객들이 모이는 불교성지와 유적지들은 집중적으로 검역과 감시중이다. 현재까지 증상이 있는 주민이나 순례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비하르주에서는 총 144명의 주민과 관광객이 자가격리 중이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기네스북 등재된 '달마 차크라'

최대 조형물, 직경 9.2m · 무게 약 6톤 규모

인도 하야나주(州) 야무나나가르 지역 토프라 칼란(Topra Kalan) 마을에 설치된 '달마 차크라(법륜 · 法輪)'가 인도판 기네스북인 '림카 북 오브 레코드(Limca Book of Records)'에 등재됐다. 인도 최대 규모의 달마 차크라 조형물로 인증된 것이다.

트리뷴인디아(the tribune india)의 지난 3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 달마 차크라는 직경 약 9.2m에 무게 약 6톤 규모다. 바퀴살은 무려 20개로 구성됐다. 일반 불상과 마찬가지로, 불교에서 영적 의미를 가지는 황금색으로 칠해졌다.

해당 매체는 "NGO 단체인 불교포럼(Buddhist Forum)에 의해 지어진 이 조형물은 건축 기간만 240여 일이 걸렸다. 지난해 비로소 완성됐다"며 "아쇼카 천황 시대 당시 하리아나(Haryana)주(州)의 문화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조형물은 인도의 잃어버린 불교 유산을 되살리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건축됐다. 불교포럼의 사무총장이자 영화 제작자인 시다르타 가우리(Sidhartha Gauri)는 인도 고대 제국이었던 마우리아 왕조 시대 마을에 아쇼카 칙령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 조형물은 공원 조성 계획의 일부인 것이다. 이로 인해 달마 차크라는 지역에서 '아쇼카 차크라'로도 불린다.



인도판 기네스북인 '림카 북 오브 레코드'에 등재된 하야나주 토프라 칼란 마을의 달마 차크라. 사진출처=트리뷴인디아

시다르타 가우리는 "현재 토프라 칼란 마을은 고대 마우리아 왕조 시대의 중심지 위에 세워졌다. 도자기 등 당시 유물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르샨 랄 재인(Darshan Lal Jain) 불교포럼 회장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토프라 칼란 마을은 정돈되지 않은 마을이었다"며 "이번 림카북 등재를 계기로 문화유산 지역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코로나19, 아이들 돌봐주는 사찰들

日 임시휴교 기간 길어져
사찰 공부 · 놀이방 마련

최근 일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교로 아이 혼자 집을 지키는 일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일본에서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던 공공기관들이 대거 폐쇄된 까닭이다. 이에 일본 각지의 사찰에서 아이들을 위해 사찰을 개방하고 나섰다. 3월 10일 일본의 '일본 뉴스 네트워크'와 '교토방송'은 아이들을 위해 개방한 사찰들을 보도했다.

시즈오카시에 소재한 이치죠지(一乘寺)는 임시휴교로 인해 집에 홀로 남은 아이들을 돕고자 본당을 개방했다. 이치죠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본당의 한 편에 공부방과 놀이방을 개설, 지역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들을 위해 사찰을 놀이방과 공부방으로 개방한 이치죠지. 사진출처=일본 뉴스 네트워크

이치죠지 주지 탄바 스겐 스님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모여 불안과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길 바라며 사찰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이치죠지에서는 대중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학교나 보육기관의 시간에 맞춰 오전부터 저녁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점심에는 사찰과 뜻을 함께하는 제과점이 아이들이 먹을 빵과 간식을 제공한다.

사찰에 아이를 맡긴 한 학부모는 "친정어머니가 돌봐주시기도 하고, 나도 일을 쉬며 아이를 돌보려 했지만 아무래도 무리가 많았다. 사찰 측에서 먼저 나서서 아이들이 모일 장소를 만들어주니 너무나 도움이 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찰에 모인 아이들도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스님과의 대화나 사찰에서의 놀이에 흥미를 보였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한 남아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너무나 심심했다. 하지만 절에 오면 친구들도 있고 신기한 것도 많아서 심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치죠지 측은 "학교들의 휴교상황에 따라 개방 시기를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교토시에 소재한 쵸라쿠지(長樂寺)는 아이들을 위해 도량을 체험학습장으로 개방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학부모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기획했다. 체험학습의 내용은 전통놀이와 사경 등 불교문화와 관련한 활동. 평소에는 체험할 수 없는 내용을 통해 평소에 제한된 몸과 마음을 움직이자는 취지다.

쵸라쿠지 주지 마키노 쥰잔 스님은 "특히 사경 체험시간에 코로나19가 더 이상 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경하자고 강조한다"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발원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서 무슬림 반군 폭탄테러

얄라 지역 지방 정부기관 앞에서 2차례 걸쳐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무슬림 반군들에 의한 폭탄 테러 사고가 발생했다. 1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3월 17일(현지시간) 태국 얄라 지역의 지방정부기관 SBPAC(Southern Border Provinces Administrative Center) 앞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무슬림 반군들의 소행으로 밝혀진 이번 폭탄 테러는 총 2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태국 남부의 얄라(Yala)주(州)다. 태국은 인구의 약 95%가 불교도인 불교 국가지만, 얄라 · 나라티왓 · 빠따니 등 남부 3개 주 등은 과거 술탄이 다스리던 빠따니 왕국의 영토였던 탓에 무슬림이 많다. 빠따니 왕국이 태국의 전신인 옛 시암 왕국에 병합되면서 자연스럽게 태국 땅이 됐지만, 여전히 무슬림 반군들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무장투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무슬림 반군들의 테러로 인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7000명이 사망했다.

폭탄 테러 발생 당시 SBPAC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정부 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군 당국 관계자는 "첫 번째 테러에서 SBPAC 건물 울타리 바깥에서 수류탄 투하가 있었다"며 "여기로부터 약 10m 떨어진 지점에서 2차 차량 폭발 테러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이미 청사 울타리 근처에 주차된 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폭탄테러가 발생한 태국 얄라지역 지방정부 앞. 사건 현장을 당국 관계자들이 수습하고 있다. 사진출처=KFGO

이로 인해 18명이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 부상자에는 언론인 5명, 경찰 5명, 군인 2명 등이 포함됐다고 전해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2020년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 공모
접수 : 2020.4.20 ~ 5.15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과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과 불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불교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불자인 개인 또는 단체)
① 개인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② 단체 :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 장학금 및 활동비 지원 금액
① 개인 : 중 ·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300만원
② 단체 : 초등학생 불교 동아리 50만원, 중 · 고등학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
대학생 · 대학원생 불교 동아리 100만원
[선정된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교사)에게 50만원 별도 지원함.]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제출 서류
- 지원서 1부(추천인 사인 포함)
* 개인 : 중 · 고등학생은 불교 동아리 지도교사, 대학생 · 대학원생은 학과장 또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의 추천인 서명 받을 것.
* 단체 : 초 · 중 · 고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사, 대학 · 대학원은 학과장 또는 불교 동아리 지도교수의 추천인 서명 받을 것.
-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접수
- 기간 : 2020년 4월 20일(월) ~ 5월 15일(금)까지
- 방법 : 우편(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 마감일 우편 소인 유효함.
-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6월 초(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2020년
불교 학술 및 콘텐츠 공모
접수 : 2020.4.20 ~ 5.15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대중화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대 상황에 맞는 불교 진흥을 위해 불교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단체)를 대상으로 불교 학술 및 콘텐츠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지원 자격 : 개인 또는 단체
○ 지원 분야
① 불교 학술(저서 · 번역서)
② 불교 콘텐츠(만화 · 동화 · 소설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
(* 저서는 200자 원고지 1,200매 이상, 번역서와 만화 · 동화 · 소설 · 수행 프로그램 개발 등은 제한 없음.)
○ 공모 주제 (* 위 지원 분야 중 1개에 대해 제시 주제와 자유 주제 중 선택 지원)
1) 제시 주제
① 젊은이들의 종교 의식 변화 트렌드 연구 분석(메타 연구 포함)
② 현대 심리학의 접목을 통해 대중화할 수 있는 불교 수행 프로그램
③ 한국 청소년들의 정서 건강과 학업에 도움이 되는 명상 방법
④ 불교의 생명 존중과 환경
2) 자유 주제 : 불교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
○ 지원금 : 1주제당 500만원 ~ 1,500만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제출 서류
① 지원서 1부(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 www.kbpf.org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제안서(A4 1p 분량)
2) 심사 절차
1단계(제안서 예비 심사) → 2단계(1단계 통과자, 계획서 발표 평가) → 3단계(종합 심사) → 4단계(대상자 선정)
3) 지원금 선정자는 연구비를 수령 후 2년 이내에 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4) 접수
- 기간 : 2020년 4월 20일(월) ~ 5월 15일(금)까지
- 방법 : 이메일(kbpf2606@daum.net)
- 문의 전화 : 02-719-2606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0년 6월 초(선정자에 한해서 개별 통보)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